

‘재정 운용 원칙 수립’ 위기 정면 돌파

비상 재정 극복 위한 전주시 재정혁신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열려… 대규모 투자사업 조정 방향 등 논의

전주시가 재정 위기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 혁신의 기준이 될 확실한 재정 운용 원칙을 마련키로 했다. 시는 20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비상 재정 극복을 위한 전주시 재정혁신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재정운용 원칙(안)과 대규모 투자사업 조정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회 세부 구성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보고 △재정운용 원칙 △대규모 투자사업 검토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위원회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재정운용 원칙을 수립할 예정이며 시는 원칙이 확정되면 2027년도 본예산 편성지침에 반영해 전 부서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정 방향이 함께 논의됐다.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추진 예정인 시설 투자사업이 총 104건으로, 앞으로 필요한 시비만 1조7,604억 원에 이른다. 시는 △조정 가능성 △진척도 △재



전주시는 20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비상 재정 극복을 위한 전주시 재정혁신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재정운용 원칙(안)과 대규모 투자사업 조정 방향 등을 논의했다.

원 구조 △사업 효과 △운영 부담 등 5가지 기준에 따라 사업을 △정상 계속 △조정 △일시 중단 △삭감 분류 △중단·폐지 등 5개 유형으로 구분해 검토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중단에 따른 손실을 고려해

공기연장과 규모 조정으로 연차별 투자비를 분산하고, 착공 전 사업은 보류 후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 신규 사업은 법정·의무 사업과 재난 대응 사업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오는 9월까지 유형별 심층 검

토를 거쳐 사업별 조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1월 이를 2027년도 본예산 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시민 기본 생활과 직결된 의무 경비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한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도 보고됐다. 시는 청소년·대중교통·사회복지 등 법정·의무적 경비를 최우선 반영하는 대신, 공약 사업을 포함한 신규 사업은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 또, 연내 집행이 어려운 시설비와 행사성 사업비, 경상경비 등은 감액해 추경 재원으로 전환키로 했다. 조지훈 전주시장은 “재정 혁신은 단순한 예산을 깎는 일이 아니라, 시민의 삶과 안전에 꼭 필요한 사업은 지키고 성과가 낮거나 유사·중복된 사업은 과감히 조정해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을 모으는 일”이라며 “그때그때 달라지는 판단이 아니라 누가 보아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도록 재정 운용 원칙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청년 교류 축제 ‘청년의 날’

전주시, 9월 18~19일 덕진공원 일원서 개최

전주지역을 포함한 도내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즐기고 교류하는 청년 축제가 펼쳐진다. 전주시는 오는 9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덕진공원 일원에서 전북특별자치도와 공동으로 ‘청년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청년들이 함께 즐기고 교류하는 자리와 더불어, 청년 정책과 지역기업·일자리 등 실질적인 정보와 기회를 더한 참여형 청년 축제로 꾸며질 예정이다. 올해 행사는 공개 모집을 거쳐 구성된 청년축제기획단 10명이 행사 기획과 운영에 직접 참여해 청년의 수요를 행사 전반에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행사장은 덕진공원의 공간적 특성을 살린 8개 특화존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메인무대에서는 지역 아티스트 등이 참여하는 공연이 펼쳐지고, 개막 행사에는 축제 슬로건을 활용한 청년 참여형 퍼포먼스가 진행된다. 또, △지역 창작자와 브랜드를 만나는 로컬 콘텐츠 △지역 브루어리와 함께하는 식음료 콘텐츠 △지역 청년작가와 소통하는 책과 대화 △놀이·활동 프로그램 △휴식·교류 공간 △청년정책 정보·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공간별 특성에 맞게 구성한다. 특히 시는 올해 청년축제의 외연

을 ‘즐기는 축제’에서 ‘청년의 미래와 기회까지 연결하는 축제’로 확장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이를 위해 공연·문화·체험의 즐거움에 더해 청년들이 지역에서 새로운 진로와 일자리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지역기업 연계 콘텐츠를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또한 시는 팔복산업단지 등 지역 내 우수기업을 적극 발굴해 청년 관심도가 높은 다양한 직무를 소개하고, 청년들이 미리 알지 못했던 지역의 좋은 기업과 일자리를 자연스럽게 발견할 수 있는 참여형 콘텐츠도 준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청년에게는 기업·직무 정보와 취업 기회를, 지역기업에는 우수한 청년인재와 만날 수 있는 접점을 제공하는 등 지역인재와 기업을 잇는 기회의 장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청년들의 실제 이용 채널과 현장 접점을 적극 활용해 청년의 날 행사를 홍보하기로 했다. 시는 전주시 청년정책 종합플랫폼 ‘청정지대’와 청년이음전주 SNS를 중심으로 지역 청년 인플루언서·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활용한 홍보를 추진하고, 대학 화생화과 청년단체·유관기관 등을 직접 찾아 행사와 프로그램을 알리는 온·오프라인 밀착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맞춤형 복지정책 발굴 나선다

전주시의회 ‘지역복지정책연구회’, 임원진 확정·세부계획 논의

전주시의회는 지난 19일 제13대 의회 ‘지역복지정책연구회’의 임원진을 확정하고, 시민 복지 수요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 발굴에 나설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연구회는 회장 채영병 의원(효자2·3·4동), 감사 홍대규 의원(효자5동), 사무국장 최영심 의원(서신동)이 맡았으며, 경현철, 양영환, 이수진, 조우영, 채민석 의원 등 총 8명으로 구성됐다. 연구회는 이날 향후 연구활동 방향과 세부계획을 논의하고, 올해 중점

연구주제로 ‘특수육구아동 지원정책’을 선정했다. 특수육구아동은 법적 장애로 진단되지 않았더라도 경계선 지능이나 ADHD, 심리·정서·행동상의 어려움 등으로 일상생활과 학습, 사회 적응에 과점에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특수육구아동은 개별적인 특성과 지원 욕구가 다양한 교육과 복지, 심리·정서적 지원 등이 복합적으로 요구되는 만큼, 기존 제도와 사업만으로 는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영역이 있는



전주시의회는 지난 19일 제13대 의회 ‘지역복지정책연구회’의 임원진을 확정하고, 시민 복지 수요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연구회의 설명이다. 전주시에서는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사업과 발달 및 심리지원 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연구회는 향후 전주시의 관련 사업과 지원체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정책적 시각지대를

파악할 계획이다. 또 전문가 간담회와 세미나 등을 통해 특수육구아동의 조기 발견과 지원, 보호자 및 현장 종사자 지원, 관련 기관 간 연계 등 다양한 정책과제를 검토하고, 결과를 토대로 실질적인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을 제언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제11기 전주시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출범

전주시가 민선9기 출범에 발맞춰 ‘제11기 전주시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와 함께 시민 중심의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민·관 복지 거버넌스를 본격 가동했다. 시는 20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조지훈 전주시장과 사회복지·학계·시민사회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협의체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1기 전주시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출범한 제11기 대표협의체는 임명직(공공) 5명과 학계, 복지시설, 노인, 장애인, 아동·청소년, 여성 등 다양한 복지 분야를 아우르는 위촉직(민간) 25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제11기 위원들의 임기는 2년으로, 오는 2028년 7월까지 전주시 복지정책의 기본 방향 설정과 주요 복지 현안을 심의·자문하는 중추적 역할을 맡

게 된다. 위촉직에서는 조지훈 시장이 위촉직 위원에게 위촉장을 접수하며 새로운 복지 거버넌스의 출발을 알렸다. 이어진 회의에서 참석 위원들은 위촉직 위원 간 호선을 통해 제11기 대표협의체를 이끌어갈 신태민 민간공동위원장을 선출하고, 앞으로의 포부와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는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작성성 심의 △사회보장기금 운용 관련 심의가 원안 가결됐다. 아울러 위원들은 향후 전주시 중장기 복지 정책의 나침반이 될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청취하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 높은 복지 계획 수립을 위한 심도 있는 정책 제언과 의견을 나눴다. /이만호 기자

전주시, 취업준비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전주시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구직활동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도 교통비를 지원키로 했다. 시는 오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전주시 누리집(www.jonju.go.kr) 내 통합신청지원 사이트를 통하여 2026년 취업준비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20일 밝혔

다. 취업준비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이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적극적인 구직활동과 이동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4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시는 지난 2년간 500여 명의 청년들에게 교통카드를

지급한 바 있다. 시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한 후 오는 9월 9일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청년들에게는 지원금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가 지급되며,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택시 등 구직활동에 필요한 교통비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주시인 18~39세(1986

년~2007년생) 취업 준비 청년으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건강보험료 소득 판정 기준)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시는 올해부터 전주시 청년소통공간인 청년이음전주에서 교통카드를 배부함으로써 청년들에게 필요한 구직 관련 정보를 함께 제공하고, 다양한 청년정책과 자기개발 프로그램도 안내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새로운 대한민국 농업

축! 전주매일 창간

새로운 대한민국 농업

“저기, 농촌에 새바람이 불어와요”

무주를 무주답게, 군민을 행복하게

농협중앙회 무주군지부장 소수은
무주농협조합장 박동열
구천동농협조합장 김성곤

K-관광수도 자연특별시 무주

자연과 생명의 등불, 반딧불

친환경농산물과 함께 합니다

무주반딧불

청정지역에서 자란 농산물